



미 증시, 넷플릭스 주가 폭락에도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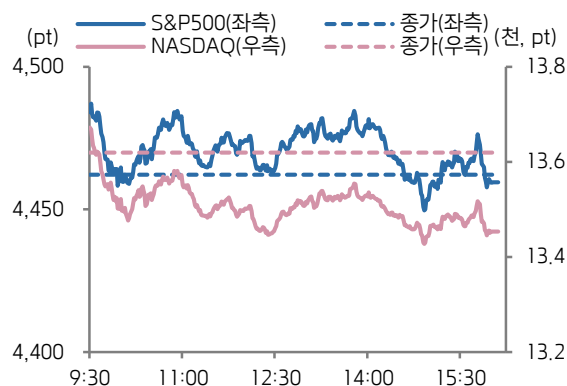
20 일(수) 미국 증시는 가입자수 쇼크에 따른 넷플릭스 주가 폭락(-35.1%)이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가운데, 연준의 미국 경기 판단 상향, IBM(+7.1%), P&G(+2.7%) 등 일부 전통 기업들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0.7%, S&P500 -0.1%, 나스닥 -1.2%).

업종별로는 부동산(+1.9%), 필수소비재(+1.4%), 헬스케어(+1.3%) 등이 강세, 커뮤니케이션(-4.1%), 경기 소비재(-1.4%), 기술(-0.1%) 등이 약세.

연준은 베이지북(경기 동향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 공급난, 타이트한 노동시장 여건 등으로 기업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입 단가 상승분을 고객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미래 경제 성장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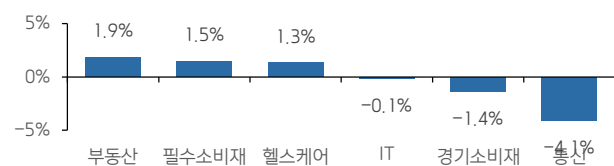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3.7%, 4.6%로 동결. 이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동결한 것으로서, 시장에서는 최근 기준을 인하에 이어서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했었으나, 인민은행이 미국 연준과의 정책 탈동조화에 대한 부담으로 동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 한편, 일본중앙은행(BOJ)은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0.25% 금리로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겠다고 발표.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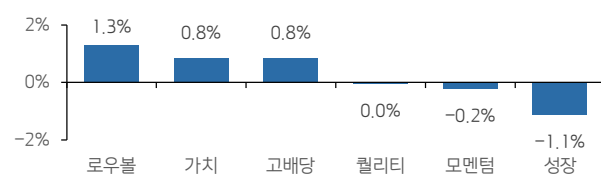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59.45	-0.06%	USD/KRW	1,235.90	-0.06%
NASDAQ	13,453.07	-1.22%	달러 지수	100.35	-0.61%
다우	35,160.79	+0.71%	EUR/USD	1.09	-0.03%
VIX	20.32	-4.91%	USD/CNH	6.44	-0.01%
러셀 2000	2,038.19	+0.37%	USD/JPY	127.94	+0.06%
필라. 반도체	3,142.20	-0.3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464.00	+1.69%	국고채 3년	2.950	-0.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05	-2bp
Eurostoxx50	3,896.81	+1.72%	미국 국채 2년	2.575	-1.6bp
MSCI 전세계 지수	696.27	+0.29%	미국 국채 10년	2.832	-10.4bp
MSCI DM 지수	2,984.70	+1.0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96.00	-0.97%	WTI	102.19	+0.14%
MSCI 한국 ETF	69.57	+0.58%	금	1955.6	-0.1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34 원.
주요 체크 사항	1. 어닝서프라이즈로 인한 테슬라 시간외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4 월 1~20 일까지의 한국 수출 결과 3. 순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변화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본격적인 1 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매크로 이슈보다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 팩트셋에 의하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편입 기업 중 약 12%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약 80%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국 1 분기 실적시즌은 순조롭게 출발한 상황. 3%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 10 년물 금리, 달러 강세, 연준 75bp 금리 인상 불안 등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에도 지수의 하단이 견조했던 배경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음. 즉,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의 1 분기 실적시즌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가입자수 유출 쇼크에 따른 넷플릭스 주가 폭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가혹하며, 업종 내 관련 기업들까지 충격의 전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추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타 빅테크 실적 결과에서도 넷플릭스 사태와 유사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 예측성 베팅 보다는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는 넷플릭스 주가 폭락 사태에도 상당부분 전거래일 반영됐다는 인식 속 국내 개별 실적 이슈, 4 월 20 일까지 수출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3 월 중 상해 섰다운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4%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긍정적인 요인. 이는 최근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숨고르기성 조정을 받고 있었던 국내 전기차 및 2 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